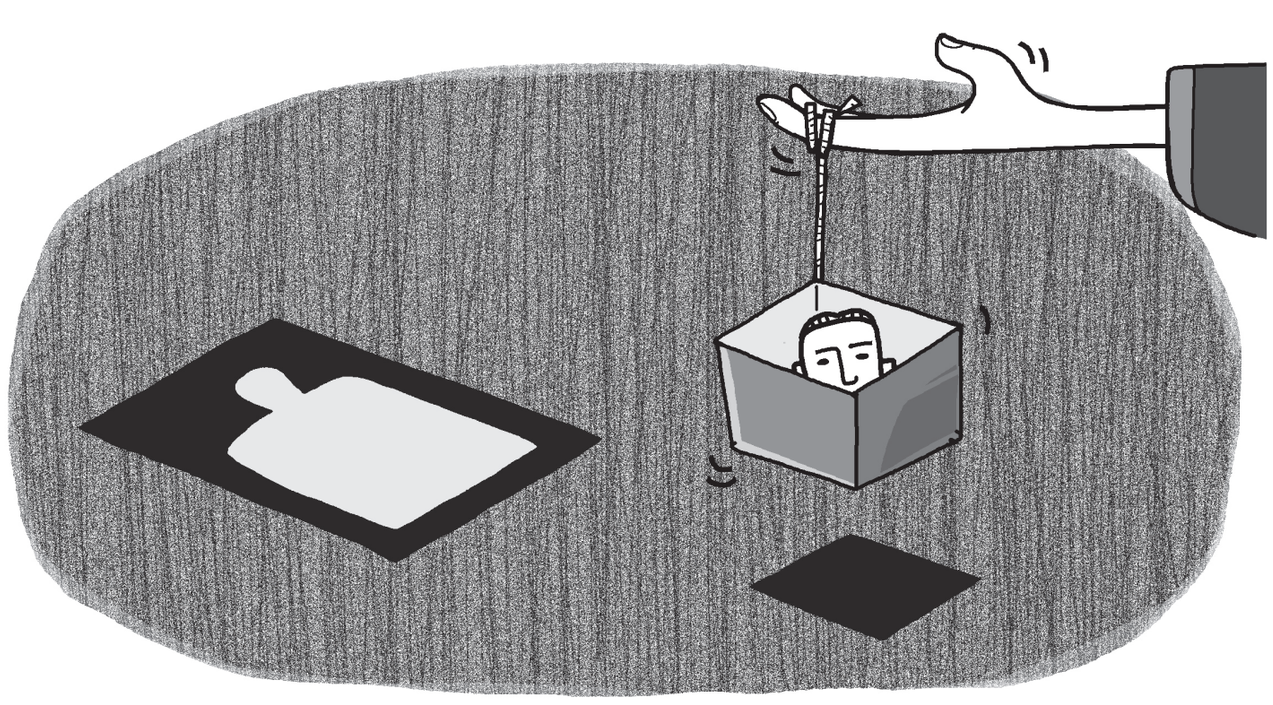
자기 근본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겁날게 없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더불어 또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됐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만 같이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과 더불어 같이 한자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고 있는 공식(共食)이며, 공체(共體)며, 공생(共生)이며, 공용(共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죠. 종교라는 자체가 바로 생활인 것입니다. 종교가 생활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이 없으면 부처라는 그 길을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헤아릴 수 없이 참자기를 만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은 영령(英靈)들이나 산 사람들, 유체, 무체 이 모두가 차원이 높고 낮은 이런 문제들에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묵묵히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고(苦)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한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이렇게 고통이 왔는지도 모르는 여러분한테 길을 인도하는 나 자신도 어떤 땐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그걸 답답하게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겠죠.

왜냐하면 몰랐을 때의 내 모습들이니깐요. 내가 언제 적부터 알았겠습니까마는 지금에 당해서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답답해지죠. 죽은 사람 산 사람들이 그렇게 결부돼 있고, 태로 나는 거나 알로 나는 거나 또는 화(化)해서 나는 거나 습한 데서 나는 거나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덩어리가 돼 가지곤 항상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되풀이하는 말 같지만 열 마디 백 마디를 되풀이하더라도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그것을 응용하실 수 있다면 처음에는 그 고통이 삼분의 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삼분의 일마저도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의 그 고(苦)덩어리,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살과 뼈를 빌려서 집을 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자기가 했던 것만치 기록된 문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에게서 몸만, 집만 받아 가지고 나온 셈이니 그 의식 자체의 덩어리, 고덩어리는 자기가 한 것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나온 것입니다. 짊어지고 나온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또 별문제인데,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짊어진 그 종 문서를 태워버리지 못하니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예전에 종 문서가 있다면 그 집의 하인 노릇을 자식대대로 내려가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다 폐지되고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차원 그대로 종 문서를 면치 못한 채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 문서를 짊어지고 나온 데서 옴쭉을 못 하니 그거는 종 문서나 한가지라 이 소립니다. 스스로 그 고덩어리 속에서 의식 자체가, 즉 말하자면 수십억 개가 차례차례로 들락거리면서 나고 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고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괴롭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식구들을 괴롭히고 식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이 자체가 수없이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데가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 너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서 집을 짓고 나왔으나 그 집 속에는 자기가 나오기 이전의 업식을 받아 가지고, 종 문서, 즉 기록 문서를 받아 짊어지고 나왔으니 옴짝달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들락날락하면서 들이고 내면서 바깥에서는 악의 세균을 끌어들이고 안에서는 안에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바깥에나 안에나 그러한 파워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병고를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고, 외로움을 일으키고, 허무감을 일으키면서 수없는 그 나날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즐거운 거는 잠시 잠깐이고 그저 걱정, 근심 이런 것만이 주어지게 합니다. 젊었으면 젊은 대로 늙었으면 늙은 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애는 애대로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그렇게 됐던 것은, 부처님께서는 몸을 갈아서 재를 만들어서 뿌렸어도 그 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살아계십니다. 또 내가 여러분한테 길잡이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무조건 믿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현실의 생활에 직결돼 있고 생활에서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살고" 이랬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죠. "본래 살아 있기 때문에 본래 죽어 갈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몸뚱이는 집과 같아서, 우리 밥 해 먹는 솥과 같아서,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오븐과 같아서 그런 것이 부서지면 새 걸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다가 간수를 잘해서 잘 쓰면 조금 오래 쓸 거고, 간수를 못하면 얼른 망가지고 얼른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뚱이를 부모한테서 받았건만 자기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굴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뭐라 하면 "그런 건 왜 참견을 합니까?" 이러거든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물건을 받은 것도 잘 보존을 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으며 충성하고도 우리 부처님 법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착한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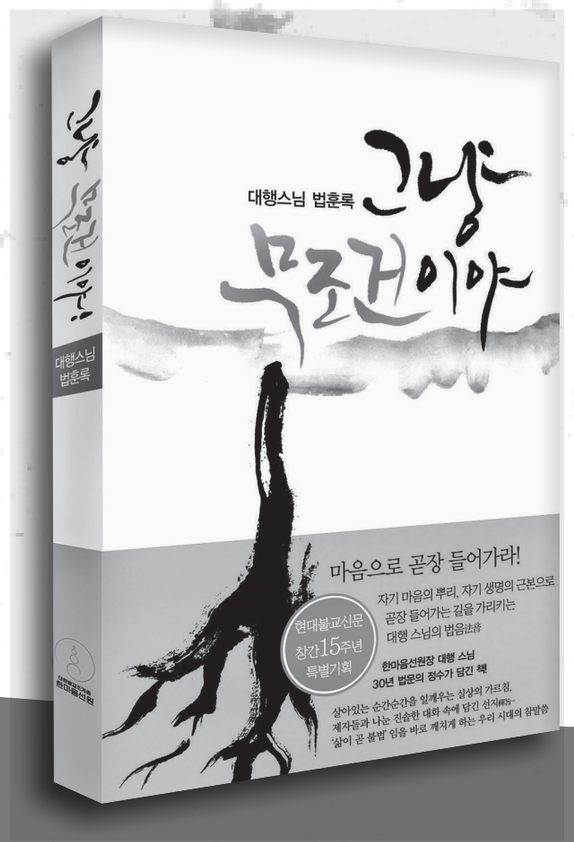
우리가 지금 항상 결부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자식은 부모가 빨리 죽으면 안 된다, 또 부모는 자식이 나를 두고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죽는다면 또 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질질질질 끌고, 그냥 재산을 다 없애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풍비박산을 만드는 이런 병고에 휘달리고 가난에 휘달리고 이래서 식구가 다 병이 들듯이 이렇게 된다면 아니 된다는 철저한 그런 생각에서 고통을 받죠.

언젠가 한번은 어느 분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럭하고 있죠. "스님, 병명이 영 나오질 않고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는 몇 달을 기다려 보라고 해서 기다려 봤더니 폐암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살려 주십시오. 우린 육남매나 됩니다. 그런데 출가는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어서 사셨는데 처음 들어온 새어머니가 너무해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서 이렇게 여직껏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살다가 이십 안쪽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외숙모 손에 자라다 보니까 무지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죽으려고도 수차례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고생을 하며 살다가 겨우 인제 집이라도 한 칸 지니고 살 만하니까…. 또 제가 모자라서 그랬던지 웬 자식들은 육 남매나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 자식들도 기르질 못하고 아내도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눈시울도 찌푸리지 않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전자에 내가 그 사람의 부모가 돼 가지고 일찍 그 자식들을 두고 죽은 것 모양 얼마나 딱하고 불쌍했던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불쌍해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윗대에서 6 · 25 때 방 안에다 잔뜩 가둬 놓고 불을 질러서 전부 태워 버린 거야. 그런데 그 영령들은 비슬비슬하면서 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버리는 흉내를 내면서 그 집의 방에 잔뜩 와 앉았더라 이거야. 이런 건 끔찍한 일이지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물론 선조 대로 그것을 잘못하려고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